

海運產業 基礎人力的 離脫 原因에 關한 實證 研究

李 學 憲*

The Breaking away Factors Analysis of the Preliminary Basic Seamen

*Hak-Hun Lee**

〈目 次〉

- | | |
|------------------|-----------------|
| 1. 序 論 | 5. 離脫 原因의 減少 方案 |
| 2. 離脫 原因의 理論的 背景 | 6. 結 論 |
| 3. 研究方法論 | <參考文獻> |
| 4. 實證 分析 結果 | |

Abstract

Today the number of high school drop-outs is increasing, and also it is serious social problems. But almost factor analyses on the drop-outs are projected by questionnaire. This paper find out by the real data from the concerned documents what factors of drop-outs ar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 purpose, the methodology are used such a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Through the this study this paper could some suggestions as followings.

The first, all education authority should analysis what factors of drop-out, and what drop-out situation is. The second, every teacher should counsel with all problem students sincerely regarding to their characters, future occupations, life course and etc. The third, the most and worst important factors of drop-out is runaway.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for teacher to teach, lead and guide a runaway student. therefore the prevention of runaway is efficient for reducing of drop-outs. The fourth, the students violating rules are retrained properly in view of guide for good path. The fifth, besides of the above factors, there are drop-out factors such as the health, disease, safety accidents. all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should try their best to solve. To the end, education authority try to encourage teachers to do their role with maximum sense of duty.

* 正會員, 釜山海事高等學校 教師

1. 序 論

1.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해운산업의 기초인력의 양성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의 근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가 거의 비슷한 실정이나 해운계 고등학교 역시 매년 약 100명의 예비 인력이 그 출발부터 이탈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이탈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해운산업의 기초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2개 학교밖에 없으며 이들 양 학교가 연간 약 70억원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 학교인 점을 고려할 때 각 학교의 전체 정원 10%이상의 예비 산업 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막대한 국가 예산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해운산업 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그 이탈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하여 학교 당국과 일선 교사들에게 이탈 학생의 문제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탈 학생의 심각성을 주지시킨다.

둘째, 이미 이탈된 학생들의 이탈 당시 개인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탈 원인의 일반화를 도모한다.

셋째, 학교 당국의 문제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 방법과 담임 교사들을 위한 객관적인 상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의 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과 문제 학생들의 효과적인 사전관리를 도모한다.

넷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 학생의 수를 최소화하고 또한, 이탈 학생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의 확장을 통하여 각급 학교의 이탈 원인 분석을 유도하고 관계 당국 차원의 전국적인 이탈 학생 관리정책 입안에 기초적인 분석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산업인력의 문제가 사회적인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 학생의 이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1. 문제 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하게 된 개인적 배경은 무엇인가?
2. 이탈 학생들의 이탈 원인은 무엇인가?
3. 이탈 원인들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4. 이탈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1.2 연구 방법

기존의 학생 이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인문·실업과의 구분이 없으며, 또한,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 이탈 원인을 모색하고 있다. 응답한 이탈 학생들은 주어진 질문 문항에 한하여 자기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이탈 사유로든 이탈된 학생은 자신의 진정한 이탈 사유를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를테면, 궁극적인 사유보다도 개인의 감정적 표현을 더 우선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유가 공부에 싫어서이면서도 선생님이 미워서 이탈을 하였다고도 설문상에는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에 의한 연구방법이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다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이탈 당시의 제반 공식적 서류들에 의거하여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연간 이탈 학생의 수를 통계분석하고 전반적인 학교 이탈의 추세를 분석한다.

둘째, 이탈 원인을 각 연구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이탈 원인의 개념을 정립한다.

셋째,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탈 원인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특정 학교 특히, 연

간 평균 이탈 학생의 수가 100명 이상으로 심각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학교의 명예를 존중하여 학교명은 표본고교로 한다.

넷째, 이탈 원인 도출을 위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제적부를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집합된 이탈 학생의 생활기록부, 종합생활기록부, 담임의견서 등을 활용하여 이탈 원인의 실증적 데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높인다.

다섯째, 통계분석 방법으로서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등을 실행한다.

여섯째, 상기 통계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탈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탈 감소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다.

1.3 연구의 기대 성과

이 연구의 예상되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탈 우려 학생에 대한 교육 당국과 교사들의 인식을 쇄신할 수 있다.

둘째, 관계 당국의 이탈 학생 학교 복귀제도의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일선 각 학교의 이탈 학생 원인 분석을 위한 일반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탈 원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이탈 원인 분석을 시도하여 각 연도별, 각 주기별 이탈 원인의 변화 추이를 비교 인식할 수 있다.

2. 離脫原因의 理論的 背景

2.1 학교 이탈의 의의와 현황

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적지 않다. 대학교 입학은

인생의 제일의 목표로 두는 교육제도와 대학을 졸업하여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보는 사회분위기에서 학교를 이탈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좌절과 소외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범죄자 중에서 학교이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감에 따라 학교이탈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비행, 질병, 가사, 또는 다른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경우 학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학사 업무를 제적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탈에는 그 이탈 사유에 따라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는 자퇴라고 하고, 학교의 학칙에 따라 퇴학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명퇴라고 한다.

이러한 이탈 처리는 자퇴, 명퇴, 퇴학, 제적 등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나 결국 학교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상의 제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교 이탈은 청소년들에게 인생에 대한 좌절을 느낄 정도로 큰 사건이다. 그래서 이탈 학생들은 범죄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실제로 청소년 범죄 가운데 이탈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탈 학생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으며 불과 몇몇의 연구에서는 학교이탈의 원인과 대책에서 개인과 가정에 너무 큰 비중을 두면서 학교쪽 요인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2.2 학교 이탈 학생의 실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이탈 학생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1981년 30,628명에서 1991년에는 22,34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1981년 43,088명에서 1991년에는 53,86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0년간 약 20% 증가한 것이며, 전체 고등학생의 2.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반계 고등학교 이탈 학생은 1981년에 19,692명에서 1991년에는 27,649명으로 7,957명이 증가한(40.4%증가) 것이며, 실업계 고등학교 이탈 학생은 1981년에 23,396명에서 1991년에는 26,216명으로 2,820명이 증가한(12.1%증가) 것

이다. 이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이탈 학생 증가가 실업계 고등학교 보다 28.3%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96년과 '97년 사이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이탈 학생은 125,387명이며 관계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탈 학생 복교 정책이 그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아래 표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복교비율은 높으나 부적응비율이 높아 재탈락자가 많으며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복교 비율이 전체 이탈 학생의 7.7%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이탈된 학생은 그만큼 복교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 복교비율은 높으나 복교후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현재, 재학중인 학생 뿐만 아니라 어떤 사유로 학교를 그만 두게 된 이탈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더욱 큰 타락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탈된 학생들의 복교 추진과정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경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과는 다른 특수한 복교 적용 수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상기 표에서와 같이 이탈된 학생들의 복교 비율이 매우 낮으며 실속 복교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학교에 적응을 못하여 다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비율도 높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나쁜 경험을 한 이탈 학생이 일반 학생과 더불어 쉽게 학교생활에 익숙하기

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사회 경험에 대한 동경, 교사와 급우들의 편향된 시각과 불신, 급우들간의 연령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복교전 일정기간의 심신 수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심신수련과정의 교육적 원리와 원칙에 맞는 다양한 심신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관계 당국의 복교정책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2.3 이탈상황의 간접 조건

2.3.1 이탈상황의 간접조건으로서 家庭의 의미

가정은 가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나 가정은 혈연관계의 가족과 비혈연관계의 구성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가정내의 가족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생산적인 기능, 보호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 오락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 등이 있다. 인간은 가정에서 출생하며 그곳에서 양육, 교육을 받는 동시에 다시 한 가정을 꾸며 독립하게 되므로 가정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된다. 따라서 가정을 건전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부모의 애정과 헌신, 이해와 노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을 때 가정의 기능은 제대로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가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생활경험을 얻는 곳이며 학교에 다니더라도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

<표 2-1> 학교 이탈자와 복교 현황

(단위 : 명)

학 교 급 별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제 적 생 수		39,791	85,576	125,387
복교자	96학년도	2,898	1,916	4,814
	97학년도	5,045	4,667	9,712
	합 계	7,943	6,583	14,526
복 교 비 율(%)		20%	7.7%	11.6%
부 적 응 비 율(%)		39.8%	31.9%	36.2%
복 교 생 중 재 탈 락		844	716	1,560

<자료: 조선일보 제23769호, 1997.7.16>

간이 제일 길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의 변화가 급격하여도 학생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다. 또한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랑 받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상호협동 정신을 배우게 되며 부모의 가치관, 교육적 식견, 부부관계와 학생들을 이해하는 정도, 교육에 대한 열의, 가정교육의 방침 등은 중요하다.

학생의 인격형성은 건전한 가정에서 비롯되며 가정이 그 고유한 기능을 상실할 때 문제 가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소수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을 이루는 소위 핵가족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의 부족, 애정결핍, 정서불안,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정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결손가정은 부모의 사망, 별거, 이혼 등에 의하여 가정기능이 약화된 가정이며, 가족 구성원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오는 자녀의 교육기능이 약화되는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손가정하의 학생들은 건전가정하의 학생들보다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가족구조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부부와 1~2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와 판이하게 다르다.

즉, 조부모를 비롯한 대가족에서의 어른들은 이제 그 영향력과 권위를 차츰 상실해가고 있으며 주로 부모의 양육형태와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던 가정교육은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독특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기(12세~18,9세)에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독립하기,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하기, 일생을 살아갈 지침이 될 가치를 획득하기 등이 핵심적인 발달 과업이다.

한 개인의 가정환경은 성격형성, 가치관 정립, 자아개념의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구성원, 특히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비행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생 비행과 결손가정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의 문제 행동은 부모의 무관심과 가정교육의 불충분, 가정불화, 부모, 교사 등과의 대화 부족, 부모의 그릇된 생활태도, 방임형, 전제형, 민주형 등의 양육형태에 따라 상당히 학생 문제의 정도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이탈상황을 가져오는 가정적 요인으로서 학생의 거주지, 학생의 형제자매수, 형제 서열, 학부모의 학력, 결손가정 등은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변수로서 열거할 수 있다.

2.3.2 이탈상황의 간접조건으로서 학교의 의미

오늘날 가정이 지닌 교육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학교는 교육과 사회화 주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장소가 아니며 성장 발달을 통한 정서적 대처능력의 배양, 진로탐색, 교사 및 또래와의 인격적 대인관계 형성 등 모든 삶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일생에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이며 기관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는 학교공부, 성적, 진학, 진로, 친구, 성격, 외모, 신체, 건강, 이성관계, 가족관계 등이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요인으로는 시험실패, 학교성적부진, 동성친구, 교사, 부모, 신체변화 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학급규모 축소, 교육투자 증액), 교육과정 위주의 교육전개, 입시위주교육 지양, 사회, 문화적 경험확대를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실시(공공기관, 사회봉사활동) 등의 외부적 정책과 학생들의 불만토로, 해소제도의 도입, 부모, 교사의 태도변화, 청소년들의 의견청취, 존재가치 확인,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 배양 등 내부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 연구에서 보면,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집단이 많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비행학생이 없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학교 측면의 이탈상황의 의미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계량적 변수로 제

시할 수 있다. 즉, 해당 학년, 해당 학과, 재학하는 동안의 학업성적(환산평균), 재학하는 동안의 결석률, 재학하는 동안의 사고결, 병결을 포함한 결석일수 등이다.

2.3.3 이탈의 직접조건과 이탈 원인의 의미

학교이탈의 원인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발행의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탈 원인을 질병, 가사, 기타로 분류하고 있고 기타 항목에는 이성문제, 취직문제, 친구유혹 등의 개인문제와 교칙위반, 성적불량, 검정고시준비, 교사증오, 학교부적응 등의 학교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같이 그 원인 유형이 극히 단순하며, 1981년부터 1991년까지의 구성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¹⁾.

교육개발원 장석민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탈원인으로는 공부 싫어서 37.5%(복수선택 합계 206%), 성적이 나빠서 35.6%, 교칙위반 26.5%, 집이 가난해서 26.5%, 친구유혹에 빠져서 22.4%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주대학교 표갑수 교수의 1991년 조사에 의하면, 공부가 싫거나 성적불량 유급 28.3%,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 14.9%, 교칙위반 14.0%, 집안이 가난 13.5%, 불량한 교우 8.1% 등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이탈 원인은 개인, 가정, 학교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가사(가정사정)

이탈 학생의 이탈 원인으로서는 가사는 학생의 가정적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가정사정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 학생 자신이 스스로 가계를 꾸려나가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여 부득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이러한 이탈 원인을 감

소시킬 것이다.

한편, 가정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가정 불화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가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따라, 국공립, 또는 사립 학교의 경우 학비의 高下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탈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와 가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로를 깊이 상담하여 산업체 부설학교 등에 진학을 권유하여 학업을 계속하면서 학비를 학생 스스로가 보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적성부적합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신의 직업 적성을 진단하는 적성검사를 하고 있으나 기존의 적성검사가 과연 얼마나 학생 개인의 잠재 취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제시하고 있는가가 의문이며, 이는 중학교 교사들의 신중한 검사와 진단 및 진로상담 활동이 결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어서는 안된다. 한 학생의 적성이야말로 그들이 일생을 낙오하지 않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잠재된 성향이라고 볼 때 그 적성검사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또한, 학생의 적성을 무시한 학부모의 대리만족이나 지나친 기대 요구 수준이 높을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능력, 취미 등과의 사이에서 갈등과 고뇌를 반복하게 되며, 결국 선택된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이것은 학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며 유능한 인력의 손실이다. 물론 학업의사가 없고 단순히 공부가 싫은 학생들은 자퇴사유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기재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탈당시의 상담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질병 가사 기타
1981년 : 4.3%, 64.2%, 31.5%
1991년 : 7.8%, 54.5%, 37.8%

3)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논의할 때 청소년의 비행은 가출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의 가출이 모두 비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소년의 가출은 다른 비행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출청소년은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연중 발생실태가 비슷한 추세이다. 이는 레저산업의 급증과 다양해진 생활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풀이되고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은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항심리와 가정에서의 무관심에서 오는 탈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가출은 가정에서의 이탈인 동시에 학교에서의 결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가출기간이 장기화되면 학생 본인은 물론 학교나 가정에서도 학생을 이탈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또한, 가출은 단지 가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출 도중에 자연히 탈선과 사회적 범행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학교나 가정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매우 심각한 이탈원인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는 가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을 선도해야 할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교칙위반

각급 학교는 학교마다 교칙과 학칙을 규정해두고 있다. 학칙은 주로 학사운영을 위한 규정이며 교칙은 주로 학생들의 생활과 학생으로서의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 학교는 학생의 비행이나 잘못이 있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급적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의 처벌을 하는 경향이 많으며 학생들이 교칙위반으로 이탈당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학칙에 의한 출석일수의 미달이나 급우간의 상습적 도박, 폭행, 폭동선동 등 학교당국의

로서 선도차원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부득이 학생을 이탈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학교의 교육 현실은 교사가 문제학생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과 선도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며, 교사 본연의 임무인 교육연구와 선도보다는 소위 잡무에 얽매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보다는 교사의 도덕적 사명감이 낮아 학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칙위반 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교사의 개인 시간을 할애하는 봉사, 회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언제나 교칙위반 학생의 위반후 선도 지도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상담활동의 강화와 교육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들면, 교사의 잡무 경감, 사기양양, 교사로서의 자부심 고취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5) 형사사건

학생이 교내·외에서 저지른 비행에 대하여 학교급 차원에서 지도나 선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경찰 당국의 조사를 받게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²⁾. 이 경우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신병인수, 선도 책임을 지고 학생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킬 수도 있으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사건의 비중이 심각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담임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의 선도 의지를 피력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보장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사회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행의 경중에 따라 선도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강·절도, 성폭행, 향정신성마약, 본드 등의 흡입은 학생 이탈의 중대한 원인이 된다.

학교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형사사건으로 인한 이탈 학생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일단 형사사건으로 형성되면 구제할 길이 없으므로 사고의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년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 등이며 범죄행위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고등학생은 거의 모두가 14세 이상임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6) 건강질병

학생 개인의 신체적 질환이나 정신적 질병은 단체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생활을 계속하기가 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간 질환, 전염성 질환 등은 타 급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무단결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병질환의 치료를 위한 결석은 병결로 처리되지만 교칙이 정한 수업일수에 대한 출석일수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병결이 용인되지 못한다.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상의하여 치료의 과정과 추세를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 이탈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기 전에 유급 등의 조치를 이탈 방지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강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부득이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7) 사망사고

여러 가지 이탈 원인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것으로서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나 하계 및 동계 휴가중 교통사고, 익사사고, 추락 등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것은 학교 당국의 철저한 안전교육실천과 안전의식의 제고이다.

이러한 사고 외에도 학생들이 등하교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던가 방과후 폭주를 만끽하다가 엄청난 사고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나친 입시 경쟁과 급우간 성적경쟁에서 학생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사회적 폐단도 간과할 수 없다.

각 가정, 학교 및 사회는 여러 가지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지대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진로변경

이미 중학교때 신중하지 못한 진로 선택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전학년에 걸쳐 매일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학생 본인에게는 학업을 포기할 만큼의 중대한 인생 문제일 수 있다.

일반 인문계 및 실업계에서도 학과의 진로 등은 인문. 실업계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인문계보다도 졸업후 바로 사회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문 승상의 사회 풍조와 대학 졸업생 선호사상 속에서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립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이 일단 선택한 진로에서, 학생의 능력, 취미, 장점 등을 발견하게 해주고 미래의 비전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며 극히 절망적이지 않는 한, 주어진 과정과 시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상담하여야 한다.

진로 변경이 학교내 학과의 변경으로 그 범위가 좁을 수도 있지만 타계열의 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의 재적인원 확보를 염두에 두고 무조건 만류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재적인원 확보보다는 학생 개인의 일생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9) 이탈 월(月)

학교의 학기는 1, 2학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1학기 후 여름방학과 2학기 후 겨울방학이 주어져 있다. 1학기는 3월부터 7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로 학사 업무가 계속된다.

또한, 이러한 학기의 구분에 맞추어 학생들의 행동도 월별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학업이 계속되면서 성적으로 인한 갈등을 느끼게 되며,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이나 야외활동에 편리한 여름과 가을 등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계절이다.

겨울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유혹을 감소시키는 계절이며 다소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이탈되는 월별 수준이 학생들의 이탈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학교 당국이나 교사들은 이러한 계절별, 월별 이탈 추이를 분석하여 이탈 원인 분석에 활용하고 이 탈 학생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

다고 본다.

3. 研究方法論

3.1 표본의 특성과 선정

이미 서론의 연구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탈 원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를 연구 표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학교는 해운계 고등학교로서 국민들의 인식부족, 관련 당국의 소극적인 예산지원 등으로 연간 제적

학생수가 100명 이상으로 국가 예산의 교육적 투자가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내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증가 추세에 있는 이탈 학생 문제는 외부로 표출하기 어려운 심각한 학교 경영의 문제이다.

이 표본고교의 경우 국립 학교로서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바, 자연히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부산, 경남지역 학생들이 70~80%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3-1〉 표본고교의 재학생 거주지 분포 현황 ('91~'97) (단위 : 명, %)

시도별 연도별 학년별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학년	91	4	20	31			4	22	8	13	18	31	48	25	6	230
	92		21	2		3	6	12	17	10	12	22	36	49	7	230
	93	4	45	2		1	2	16	14	6	10	19	28	53		230
	94		95	1		1	1	3	6	2	10	3	14	64		230
	95	2	122					1			6		4	22		157
	96	5	238	3	2	1	7	14	5	1	1	3	8	74	5	230
	97	5	159	3	2	1	7	14	5	4	6	5	16	74	6	230
	소계	20	700	42	4	7	27	82	55	36	63	83	154	361	24	1658
%	1.2	42.2	2.5	0.2	0.4	1.6	4.9	3.3	2.2	3.8	5.0	9.3	21.8	1.4	230	
2학년	91	3	21	2		3	6	12	17	10	12	22	36	49	7	200
	92	4	45	2		1	2	16	14	6	10	19	28	53		200
	93		95	1		1	1	3	6	2	10	3	14	64		200
	94	4	181	1			1	2	1	1	8		8	36		200
	95	6	204	1			3	7	6	2	3	5	10	82	6	200
	96	8	210	4			5	9	3	1		4	7	67	7	200
	97	8	210	4			5	9	3	1		4	7	67	7	200
	소계	33	966	15		5	23	58	50	23	43	57	110	418	27	1828
%	1.8	52.8	0.8		0.3	1.3	3.2	2.7	1.3	2.4	3.1	6.0	22.9	1.5	200	
1학년	91	4	45	2		1	2	16	14	6	10	19	28	53		200
	92		95	1		1	1	3	6	2	10	3	14	64		200
	93	4	181	1			1	2	1	1	8		8	36		200
	94	7	239	1			3	7	8	3	6	5	11	95	7	200
	95	7	241	2			4	7	4		1	3	5	103	16	200
	96	4	159			1	8	12	3	4	6	5	16	103	6	200
	97	4	238			1	8	12	3	1	1	3	8	103	5	200
	소계	30	1198	7		4	27	59	39	17	42	38	90	557	34	2142
%	1.4	55.9	0.3		0.2	1.3	2.8	1.8	0.8	1.9	1.8	4.2	26.0	1.6	100.0	
총누계	83	2,864	64	4	16	77	199	144	76	148	178	354	1,336	85	5,628	
전체에 대한 %	1.5	50.9	1.1	0.1	0.3	1.4	3.5	2.6	1.4	2.6	3.2	6.3	23.7	1.5	100.1	

<표 3-2> 표본고교의 학년별 7년간 거주지 분포 평균 백분율

(단위 : %)

시도별 학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학년	1.2	42.2	2.5	0.2	0.4	1.6	4.9	3.3	2.2	3.8	5.0	9.3	21.8	1.4	100
2학년	1.8	52.8	0.8	0.0	0.3	1.6	3.2	2.7	1.3	2.4	3.1	6.0	22.9	1.5	100
1학년	1.4	55.9	0.3	0.0	0.2	1.3	1.4	3.5	2.6	1.4	3.2	6.3	23.7	1.5	100

연구표본의 선정은 표본고교의 연간 이탈 학생으로 하였다.

1992년도부터 1996년까지 5년간 총 이탈 학생 507명중 객관적이고 통일화된 자료가 없는 이탈 학생 55명을 제외한 총 455명을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표 3-3> 표본고교의 연도별 이탈 학생수(단위: 명)

연도	'92	'93	'94	'95	'96	합계
이탈 학생수	98	73	93	103	140	507

3.2 자료수집의 방법

총 455명의 이탈 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이탈 학생의 생활기록부, 종합생활기록부, 이탈에 관한 담임의견서, 학부형 내교통지서 등에 나오는 모든 객관적 사실과 증빙서류를 활용하여 각종 자료를 채택하였다.

3.3 연구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아래 <표 3-4>와 같이 변수는 우선 가정변수, 학교변수 및 이탈변수 등 3가지로 나누고 다시 각

<표 3-4> 변수의 분류와 조작적 정의

變數名	變數項目	符號名	操作的 定義
家庭 變數	居住地	ADD	1:부산, 2:경남, 3:경북, 4:대구, 5:서울, 6:인천, 7:경기 8:충남, 9:충북, 10:강원, 11:전북, 12:광주, 13:전남, 14:제주
	兄弟姊妹數	BRSI	0:독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1,2,3,4,5,6,7로 부여
	兄弟序列	ORDER	1:장남, 2:차남, 3:막내
	父 學歷	FAHAK	1:무졸, 2:국졸, 3:중졸, 4:고졸, 5:대졸
	母 學歷	MOHAK	1:무졸, 2:국졸, 3:중졸, 4:고졸, 5:대졸
	缺損家庭	GRSN	1:부모 있음, 2:부 있음, 3:모 있음, 4: 부모 없음
學校 變數	學科	PART	O:운항과, N:항해과, E:기관과
	學年	CLS	1:1학년, 2:2학년, 3:3학년
	學業成績	RANK	환산평균점수를 5.00만점 기준으로 재학 당시 총평균
	缺席率	RATE	전체 수업할 일수에 대한 재학 당시까지의 결석한 총 일수
	事故缺席	SAGO	총 사고결석일수(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 결석으로 환산)
	病缺席	BNGO	총 병 결석일수(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 결석으로 환산)
이탈 變數	退學月	MON	이탈한 퇴학한 달이며 1월~12월까지 각 월을 숫자로 규정
	이탈原因	WHY	1:가사, 2:적성, 3:가출, 4:교칙위반, 5:형사사건 6:건강질병, 7:사망, 8:진로변경전학

변수마다 변수 항목을 6개, 6개, 2개씩 차례로 선정하였다. 부호명과 조작적 정의는 통계분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문자와 숫자로 명명하고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의미로 각각 정의하였다.

3.4 분석모형의 구축

이탈상황의 간접조건으로서 12가지의 변수와 이탈 원인의 직접조건인 8가지 요인의 빈도분석과 부모의 학력간, 결혼가정, 학과 및 학년간의 교차분석 및 거주지와 이탈 원인간, 형제서열과 이탈 원인간, 결혼가정과 이탈 원인간, 학과와 이탈 원인간, 학년과 이탈 원인간, 이탈월과 이탈 원인간의 교차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實證 分析 結果

4.1 변수 및 요인의 빈도 분석

4.1.1 이탈 학생의 거주지 빈도분석

이탈 학생 455명중 262명이 부산에 거주하는 학생들로서 전체 57.6%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이 경남에 거주하는 학생들로서 116명에 2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91년~'97년까지 7년간 평균 전체 재학생 거주지 평균 백분율인 부산 50.9%와 경남 23.7%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4.1.2~4.1.3 이탈 학생의 형제자매수 및 형제서열 빈도분석

전체 이탈 학생 455명중 독자인 학생은 84명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1인에 서 2인 학생들이 299명으로 전체 65.7%를 차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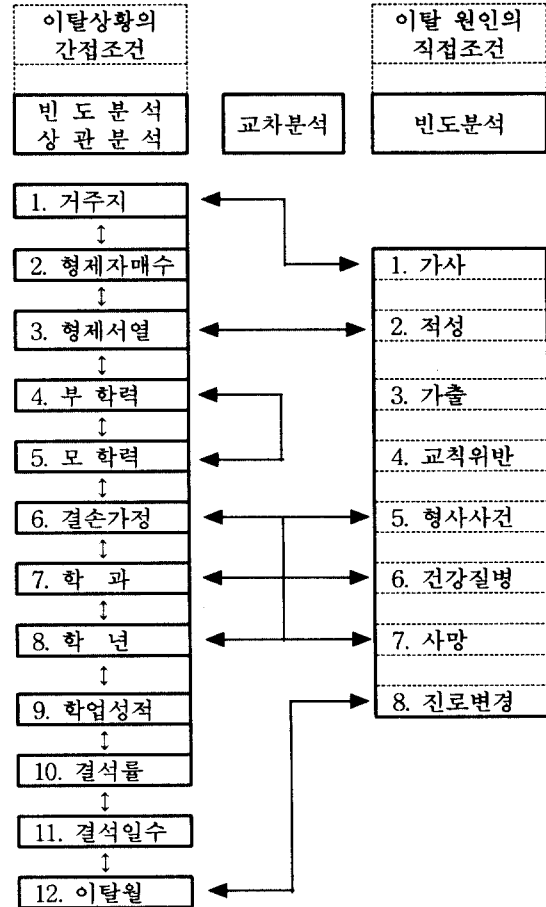


그림 3-1. 분석모형

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1인 이상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 각 가정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에 다소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이탈 학생중 장남(또는, 독자)인 학생은 280명으로 전체 61.5%를 차지하여 한 가정을

〈표 4-1〉 거주지 빈도분석 현황

(단위 ; 명, %)

거주지 항목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제주
Freq.(빈도)	262	116	19	4	7	5	15	6	5	3	0	1	4	8
Percent(%)	57.6	25.5	4.1	0.9	1.5	1.1	3.3	1.3	1.1	0.7	0	0.2	0.9	1.8

이끌어 가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표 4-2〉 형제자매수 및 형제서열 빈도분석 현황
(단위 ; 명, %)

형제자매수 항목	독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Freq.(빈도)	84	177	122	48	14	5	1	9
Percent(%)	18.5	38.9	26.8	10.5	3.1	1.1	0.9	0.2
형제서열 항목	장남 (독자)	차남	막내	/				
Freq.(빈도)	280	44	131					
Percent(%)	61.5	9.7	28.8					

4.1.4~4.1.5 이탈 학생의 부모 학력
전체 이탈 학생중 아버지의 학력은 중. 고졸이 277명(60.9%), 어머니의 학력은 중. 고졸이 263명(57.8%)로서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 학력이 중. 고졸이나 아버지의 경우 중졸보다 고졸이 많으나 어머니의 경우 중졸이 고졸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3〉 학부모 학력 빈도분석 현황
(단위 ; 명, %)

항목	부 학력					모 학력				
	무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무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
Freq.(빈도)	9	65	131	146	20	6	96	186	77	4
Percent(%)	2.0	14.3	28.8	32.1	4.4	1.3	21.1	40.9	16.9	0.9

4.1.6 이탈 학생의 결손가정의 빈도분석
일반적으로 문제학생의 경우, 그 근본적인 원인을 결손가정에서 찾고 있으나, 이 분석에서는 이탈 학생의 66.2%(301명)가 부모가 계시는 결손가정 학생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결손가정의 학생인 경우 문제학생으로 보는 편협적인 시각은 지양해야 할 사실이다.

〈표 4-4〉 결손가정 빈도분석 현황
(단위 ; 명, %)

결손가정 항목	父. 母있음	父만 있음	母만 있음	父. 母 없음
Fred.(빈도)	301	68	69	16
Percent(%)	66.2	14.9	15.2	3.5

4.1.7~4.1.8 이탈 학생의 학과 및 학년의 빈도분석
이탈 학생의 학과별 및 학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운항과가 전체 49.5%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항해과보다 기관과가 다소 낮은 비율이다.

이는 분석 대상 기간인 '92년~'96년중 1993학년도부터 운항과 1개 학과에서 운항과, 항해과, 동력기계과 등 3개 학과로 학과 편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3개 학과 중에서 동력기계과가 이탈 학생이 가장 적은 이유는 입학 당시 중학교 내신 성적이 타 학과 지원 학생들 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탈에는 학생 본인의 의지와 성취동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각급 학교가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탈 학생의 학년별 분포에서 보면, 전체 455명 이탈 학생중 1학년이 302명으로 전체 66.4%를 차지하고 있고, 2학년이 111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탈 학생의 대부분이 저학년에 여러 가지 이탈사유로 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우선 각급 중학교의 각 담임교사가 보다 성실한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취미를 발견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기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각급 고등학교가 이들의 적성을 개발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학사 업무의 중요한 교육 과제라고 본다.

〈표 4-5〉 학과 및 학년 빈도분석 현황 (단위 ; 명, %)

학과 및 학년	운항과	항해과	동력 기계과	1학년	2학년	3학년
Freq.(빈도)	225	133	97	302	111	42
Percent(%)	49.5	29.3	21.3	66.4	24.4	9.2

4.1.9 이탈 학생의 학업성적 빈도분석

이탈 학생의 재학 당시까지의 성적을 살펴보면 환산평균³⁾ 5.0만점에 3.0미만의 학생들이 371명 (81.6%)으로 대부분 학생들의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 그러나 3.5이상의 학생들은 26명으로 5.7%에 불과하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학업성취가 곧 학생들의 적극적인 인생에 대한 진취적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학업성취에 관한 성취수준은 학생 지도의 내면적 교육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며, 학업성취도만을 학생 개인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4.1.10~4.1.12 이탈 학생의 결석률, 사고결수 및 병결일수의 빈도분석

이탈 학생들이 이탈할 당시까지의 결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결석 일수는 사고나 병으로 인한 결석이 며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 결석으로 환산하여 포함시키고, 결석률은 전체 수업할 일수에 대한 재학 당시까지의 결석한 총 일수를 의미한다.

이탈 학생의 경우, 대체로 결석률이 39%이하까지가 276명(60.6%)이나 되며 결석률이 0인 학생은 전체 455명중 9명에 불과하다.

이는 이탈전 학생의 상황은 상당기간 장기결석에 이르고 있으며 물론 장기결석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의 지속적인 상담활동이 더욱 요망되며 시간적으로 충분한 설득과 선도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기결석이 자칫 이탈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학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시간 벌기로 오용되어서는 안되며 장기결석 기간이 길수록 학생, 학부모, 교사사이의 상담과 선도의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탈사유에 병결은 그다지 큰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사고결석과 병결은 무관하며, 이탈 학생 455명중 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적이 있는 학생은 모두 146명이며 이 146명중 108명은 9일 이하의 병결석을 하였을 뿐이다.

〈표 4-6〉 학업성취 빈도분석 현황 (단위 ; 명, %)

학업성취 환산 평균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이상
Freq.(빈도)	173	13	23	56	106	58	13	11
Percent(%)	38.0	2.9	5.1	12.3	23.3	12.7	2.9	2.4
Cum. Percent(%)	38.0	40.9	46.0	58.3	81.6	94.3	97.2	100.0

3) 환산평균점수는 학생들이 성취한 각 과목 성취도를 점수화한 총계 즉, 환산 총점에 학기당 각 과목 이수단위를 총합한 총이수단위로 나누어서 매 학기말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각 과목당 성적과 등위가 책정되는 등 환산총점이나 환산 평균 등과 같은 척도는 없어졌다.

<표 4-7> 결석률 및 결석일수 빈도분석 현황

(단위 ; 명, %)

결석률(%),사고결(일) 병결(일)	0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이상
항 목												
결석률Freq.(빈도)	9	47	92	82	55	24	33	29	11	20	10	43
사고결수Freq.(빈도)	13	34	44	83	40	66	54	37	40	24	9	11
병결수Freq.(빈도)	309	108	18	10	5	.	1	.	2	1	.	1
결석율빈도Percent(%)	2.0	10.3	20.2	18.0	12.1	5.3	7.3	6.4	2.4	4.4	2.2	9.5
사고결수빈도Percent(%)	2.9	7.5	9.7	18.2	8.8	14.5	11.9	8.1	8.8	5.3	2.0	2.4
병결수빈도Percent(%)	67.9	23.7	4.0	2.2	1.1	0.0	0.2	0.0	0.4	0.2	0.0	0.2

4.1.13 이탈 학생의 이탈된 月の 빈도분석

이탈 학생의 이탈된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3월, 4월, 6월, 9월, 5월, 11월 순이며 1월과 8월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달이다. 특히 3월 4월에 가장 이탈 학생의 수가 많은 것은 학년초기에 이를 학교 생활의 부적응으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3월과 4월에 학생들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안정화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4.1.14 이탈 학생의 이탈사유

이탈 학생의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감정적이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공식적인 이탈 문서상에 나타난 것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적성부적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학교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중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의 적성 파악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한 결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는, 학생 자신의 주관과 의지가 부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튼 적성부적합으로 인하여 전체 이탈 학생 455명중 169명(37.1%)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현상에 대하여 각급 학교는 매우 심각한 교육현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출, 교칙위반, 진로변경 등 기타의 이탈사유들로 학생 본인의 의지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탈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이 적성부적합이 가져온 또 다른 이탈

<표 4-8> 이탈월 빈도분석 현황

(단위 ; 명, %)

이탈월 항목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Freq. (빈도)	3	27	68	68	40	55	27	6	48	36	44	33
Percent (%)	0.7	5.9	14.9	14.9	8.8	12.1	5.9	1.3	10.5	7.9	9.7	7.3

<표 4-9> 이탈사유 빈도분석 현황

(단위 ; 명, %)

항목	이탈사유	가사	적성	가출	교칙위반	형사사건	건강질병	사망	진로변경
Freq.(빈도)		69	169	119	39	8	17	3	31
Percent(%)		15.2	37.1	26.2	8.6	1.8	3.7	0.7	6.8

사유일지도 모를 일이다.

4.2 변수 및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앞서 빈도분석에서 사용한 변수 14 항목을 모두 상관분석에 투입하여 본 바, 거주지, 이탈 원인 등의 변수는 단순 명목척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상관분석의 유의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병결석 변수 역시 전체 455개의 표본 중에서 대부분이 병결이 없거나 병결석수가 미미하여 유의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표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외 여타의 변수들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상관계수의 값이 극히 적거나 유의수준 $p < 0.05$ 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이를 모두 제외하고 남은 변수간 상관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손가정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r = -0.7267, p = 0.000$)
- 2)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손가정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r = -0.3940, p = 0.000$)
- 3)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r = -0.2396, p = 0.000$)
- 4) 학년이 높을수록 결석률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 ($r = -0.5040, p = 0.000$)
- 5) 학년이 높을수록 사고결석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r = 0.3206, p = 0.000$)
- 6)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r = 0.5279, p = 0.000$)
- 7) 결석률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 ($r = -0.6888, p = 0.000$)

<표 4-10>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현황4)

	ADD	BNGO	BRSI	CLS	FAHAK	GRSN	MOHAK	MON	ORDER	PART	RATE	RANK	SAGO	WHY
ADD	-	-	-	-	-	-	-	-	-	-	-	-	-	-
BNGO	-	-	-	-	-	-	-	-	-	-	-	-	-	-
BRSI	-	-	-	-	-	$r = -0.1416$ $p = 0.002$	-	-	$r = 0.3008$ $p = 0.000$	$r = -0.1025$ $p = 0.000$	$r = -0.2332$ $p = 0.000$	$r = -0.2396$ $p = 0.000$	-	-
CLS	-	-	-	-	-	-	-	$r = -0.1078$ $p = 0.000$	$r = 0.1134$ $p = 0.016$	$r = 0.1474$ $p = 0.002$	$r = -0.5040$ $p = 0.000$	$r = 0.5279$ $p = 0.000$	$r = 0.3206$ $p = 0.000$	-
FAHAK	-	-	-	-	-	$r = -0.7267$ $p = 0.000$	$r = 0.1799$ $p = 0.000$	-	-	-	$r = -0.022$ $p = 0.000$	-	-	-
GRSN	-	-	$r = -0.1416$ $p = 0.002$	-	$r = -0.7267$ $p = 0.000$	-	$r = -0.1071$ $p = 0.000$	-	$r = -0.1096$ $p = 0.019$	$r = 0.1336$ $p = 0.004$	-	-	-	-
MOHAK	-	-	-	-	$r = 0.1799$ $p = 0.000$	$r = -0.1071$ $p = 0.000$	-	-	-	-	$r = -0.1071$ $p = 0.000$	-	-	-
MON	-	-	-	$r = -0.1078$ $p = 0.000$	-	-	-	-	-	-	-	$r = 0.4397$ $p = 0.000$	$r = 0.2252$ $p = 0.000$	-
ORDER	-	-	$r = 0.3008$ $p = 0.000$	$r = 0.1134$ $p = 0.016$	-	$r = -0.1096$ $p = 0.019$	-	-	-	-	$r = -0.1705$ $p = 0.000$	$r = 0.1512$ $p = 0.001$	-	-
PART	-	-	$r = -0.1025$ $p = 0.000$	$r = 0.1474$ $p = 0.002$	-	$r = 0.1336$ $p = 0.004$	-	-	-	-	$r = -0.1446$ $p = 0.002$	-	-	-
RATE	-	-	$r = -0.2332$ $p = 0.000$	$r = -0.5040$ $p = 0.000$	$r = -0.022$ $p = 0.000$	-	$r = -0.1071$ $p = 0.000$	-	$r = -0.1705$ $p = 0.000$	$r = -0.1446$ $p = 0.002$	-	$r = -0.6888$ $p = 0.000$	-	-
RANK	-	-	$r = -0.2396$ $p = 0.000$	$r = 0.5279$ $p = 0.000$	-	-	-	$r = 0.4397$ $p = 0.000$	$r = 0.1512$ $p = 0.001$	-	-	$r = -0.6888$ $p = 0.000$	$r = 0.2252$ $p = 0.000$	-
SAGO	-	-	-	$r = 0.3206$ $p = 0.000$	-	-	-	$r = 0.2252$ $p = 0.000$	-	-	-	-	$r = 0.2252$ $p = 0.000$	-
WHY	-	-	-	-	-	-	-	-	-	-	-	-	-	-

(r =상관계수, p =유의도, $p < 0.05$ 수준 하에서 채택)

4) ADD :거주지 ,BNGO :병결, BRSI :형제자매수, CLS :학년, FAHAK :부 학력, GRSN :결손가정, MOHAK :모 학력, MON :이탈월 ,ORDER :형제서열, PART :학과, RANK :성적, RATE :결석률, SAGO :사고결, WHY :이탈 원인

〈표 4-11〉 학년과 학과 및 결손가정간의 교차분석 현황 (단위 ; 명)

학년. 학과 \ 학과. 결손	운항과	항해과	동력기계과	부.모 있음	부만 있음	모만 있음	부.모 없음
1	173	70	59	207	43	43	9
2	36	47	28	66	19	20	5
3	16	16	10	28	6	6	2
운 항 과				161	28	28	7
항 해 과				84	26	21	2
동력기계과				56	14	20	7

- 8) 이탈 월이 12월에 가까울수록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r=0.4397$, $p=0.000$)
- 9) 이탈 월이 12월에 가까울수록 사고결석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r=0.2252$, $p=0.000$)

4.3 변수 및 요인간의 교차분석

교차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학년과 학과, 학년과 결손가정, 학과와 결손가정, 학부모 학력, 이탈 원인과 거주지, 이탈월, 학년, 학과, 결손가정, 형제서열 등이다. 사고결, 병결 성적 등의 변수는 입력시 실제 데이터를 척도로 만들지 않고 투입하여 그 통계량 값이 방대하여 여기서는 생략하였으나 앞서 행한 빈도분석의 결과에 만족하고자 한다.

4.3.1~4.3.3 학년과 학과 및 결손가정간의 교차분석
먼저 학과와 학년간의 교차분석에서 3개 학과 모두 고학년일수록 이탈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항해과가 동력기계과보다 3개 학년에 걸쳐 모두 이탈 학생의 수가 많다. 또한, 앞서 빈도분석에서와 같이 운항과의 이탈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타 학과보다 많은 것은 '93년 이전까지는 운항과 1개만의 학과로 학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교차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결손가정은 이탈 학생의 절대적인 이탈 원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33.6%에 해당하는 153명이 편부 편모 슬하에 있거나 양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는 결손가정 학생들이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결손가정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상담지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4.3.4 부모학력간의 교차분석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의 학력보다 다소 높으나 대부분 중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다소 낮은 학생들에 대한 담임교사의 부모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12〉 부모학력간의 교차분석 현황 (단위 ; 명)

부 학력 \ 모 학력	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무	5
국졸	.	45	7	1	1
중졸	.	19	82	4	.
고졸	.	4	66	49	.
대졸	1	.	4	10	2

4.3.5~4.3.6 거주지 및 이탈월등과 이탈 원인간의 교차분석

각 거주지별 이탈 원인을 살펴보면 8가지 이탈 원인중 적성부적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역 공히 진로변경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로 이탈한 달은 3월 4월이 가장 높으며, 적성부적합의 경우는 3월부터 6월까지로 전학기가 후학기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또 가출의 경우는 3월, 4월, 6월, 7월, 11월, 12월 등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교칙위반의 사례는 12월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진로변경은 전학기가 후학기의 2배 정도로 많다.

〈표 4-13〉 거주지 및 이달월과 이달 원인간의 교차분석 현황

(단위 ; 명)

이달 원인		가사	적성	가출	교직위반	형사사건	건강질병	사망	진로변경
거주지	부산	42	101	68	20	6	8	3	14
	경남	14	44	34	11	1	5	.	7
	경북	4	7	6	.	1	1	.	.
	대구	1	1	1	1
	서울	1	3	1	1
	인천	.	.	1	4
	경기	2	4	3	.	.	2	.	4
	충남	2	1	2	1
	충북	2	2	1
	강원	.	1	2
	전북
	광주	.	.	.	1
	전남	1	1	1	1
	제주	.	4	1	2	.	.	.	1
이달월	1 월	.	.	1	2
	2 월	2	6	9	7	1	.	.	2
	3 월	12	36	10	.	.	4	.	6
	4 월	18	24	15	3	.	3	.	5
	5 월	2	25	4	2	.	2	.	5
	6 월	9	25	15	.	2	.	.	2
	7 월	2	7	14	2	2	.	.	.
	8 월	1	1	1	.	.	.	2	1
	9 월	6	7	12	.	3	5	1	4
	10 월	7	13	11	3	.	.	.	2
	11 월	7	14	14	5	.	1	.	3
	12 월	3	1	13	15	.	.	.	1

4.3.7~4.3.10 학년, 학과, 결혼가정, 형제서열 등과 이달 원인간의 교차분석

8가지 이달 원인중 가출 및 형사사건의 사유는 고학년이 되어도 그 수가 낮아지지 않으며 다른 사유들은 고학년이 되면서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적성부적합 및 건강질병 등의 사유는 주로 1학년때 이달사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사정인 경우는 3학년에 가서는 전혀 없으므로

이는 곧 실습과 취업으로 경이탈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또 적성부적합의 경우 대부분 1학년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무성의한 진학지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가지 이달 원인 대부분이 결혼가정 학생들보다 부모가 있는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가출, 교직위반, 형사

〈표 4-14〉 학년, 학과, 결손가정, 형제서열 등과 이탈 원인간의 교차분석 현황 (단위 ; 명)

항목		이탈 원인		가출	교직원반	형사사건	건강질병	사망	진로변경
		가사	적성						
학 년	1학년	48	142	56	20	2	14	.	20
	2학년	21	21	43	11	3	2	2	8
	3학년	.	6	20	8	3	1	1	3
학 과	운항과	30	85	54	29	5	6	.	16
	항해과	29	47	36	6	1	4	2	8
	동력기계과	10	37	29	4	2	7	1	7
결손가정	부.모 있음	42	117	77	26	5	8	2	24
	부만 있음	10	26	20	4	1	4	1	2
	모만 있음	14	22	15	8	1	4	.	5
	부.모 없음	3	4	7	.	1	1	.	.
형제서열	장남(독자)	43	112	68	15	7	10	3	22
	차남	3	10	18	9	.	1	.	3
	막내	23	46	33	15	1	6	.	6

사건, 진로변경 등의 사유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8가지 이탈 원인 모두 장남이나 독자인 경우가 차남이나 막내보다 많으나, 차남보다는 막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5. 離脫 原因의 減少 方案

일반적으로 관계 당국, 학교, 교사 및 학부모나 학생 모두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교이탈 즉, 이탈 처리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든 이탈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 행정과 교사 역할에 대하여 그 사명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탈에 대한 거론조차 기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의 사회문제가 대부분 이 탈 학생의 증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때 각급 학교는 물론 관계 당국도 이탈 학생의 현황과 추세 및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 단위로 파악된 이탈 원인에 따라 이 탈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이탈 학생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탈 학생 감소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각급 학교 단위의 이탈 학생의 현황

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학교 차원의 대안을 마련 하여야 하며, 이탈 원인별로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아울러 학교의 모든 학생지도는 이탈상황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며 교사의 교육력은 문제학생과의 상담 및 지도에 결 집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 개인의 신상과 가정형편을 학년초 기에 파악하여 학년초에 발생하기 쉬운 학생들의 이탈행위를 사전에 예방조치한다.

셋째, 각급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학생들의 적성과 신념 및 의지를 면밀히 관찰하여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취미와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등학교 입학 후 학년초 학생들의 적성부적합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학업 포기를 예방해야 한다.

적성부적합의 이탈 사유는 학생들이 학업도중 진로변경으로 새로운 문제와 고민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장이 중학교 졸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성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로지도 및 진학권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 졸업으로 중학교의 책임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넷째, 이탈 학생의 중대한 이탈 원인으로 가출은 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평소 성실한 상담활동 등으로 학생의 고민과 충동을 파악하여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가출이 발생한 경우, 최단 시일 안에 학생의 거처를 발견하여 조기 귀가와 복교를 서둘러야 한다.

다섯째, 교칙위반의 경우, 지도교사는 되도록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지도하여야 하며, 한번 교칙을 위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불량 학생이라든가 문제아로 보는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한다.

여섯째, 형사사건으로 이탈상황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학교, 교사, 학부모는 최선을 다하여 선도 처분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신분이 학생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보다는 교사의 노력여하에 따라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은 상당히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면도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학생의 건강과 질병은 학부모가 가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나 가끔은 학부모보다도 교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 및 학생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하여 질병의 비중에 따라 학생의 통원치료, 입원 또는 휴학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상태가 극히 심각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은 이탈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확신하여야 한다.

여덟째, 학년도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평소 철저한 안전교육외에 대안이 없다. 교내 생활 속에서 함양된 안전의식은 교외에서도 잘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클럽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교육, 훈련하여야 한다.

아홉째, 이러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교사들의 사기양양과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6. 結 論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학급 학생들의 학업 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수 차례의 내교통지서, 수 십번의 전화통화, 수차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끝내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당시 상황과 담임교사의 고충을 담임의견서와 469명의 이탈 학생 관계서류를 확인하면서 깊이 동감하였다. 이것이 감히 인정하기 싫은 우리나라 현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실임을 밝혀두면서 이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학교이탈에 관한 연구 방법이 이탈 학생에 대한 설문에 그치고 있어 실제 이탈된 학생들의 관련 제적 서류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 또한 관련 자료를 통계적 수치로 변환하여 통계분석에 응용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교차분석 등이다.

이 연구의 표본대상이 이탈 학생에만 한정함으로써 중요한 변수들을 재학생과 이탈 학생과의 차별화하지 못했다. 더 구체적인 이탈 원인의 규명에는 이탈 학생의 수만큼 재학생의 표본을 동시 투입하여 전체 표본을 구성함으로써 이탈 원인이 차별화됨으로써 실질적인 이탈 원인의 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분석기간에는 학제가 1개 학과 연도와 3개 학과 연도가 구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빈도분석에서 모든 이탈요인이 운항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단을 이탈 학생에 한정함으로써 이탈 학생 집단의 특성을 통계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자신의 희망과 실제 능력사이에서 무수한 갈등을 겪고 있음에 틀림없다. 학교와 교사는 이러한 이들의 방황과 갈등을 진단하고 치유해야할 교육자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에서의 이탈 학생이 되면 사회의 또 다른 낙오자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적 환경조성과 선도활동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며, 관계 당국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적 사명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박사학위 등 학력이 높은 교사를 선발한다고 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과제는 교육적 사명감에 불타는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교육풍토의 조성이라고 본다.

궁극적인 교사의 역할은 학생에 대한 최선의 지도를 통하여, 학생이 성실하고 건강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교육에 있는 것이다.

또한, 관계 당국은 교사의 사명감을 위축시키는 생각과 태도를 일신하여 교사가 자신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 교육정책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 교육 정책 수행의 대리인이 아닌 주체임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인문을 숭상하고 실업을 천시 여겨 우수한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기피함으로써 성취 동기가 낮은 학생들이 실업계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산업의 기초인력이 중도 탈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할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발전은 기술인력의 우대와 조기확보 및 적절한 관리에 달려 있음을 교육 관계자 모두는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1) 권이중, 청소년의 문제와 지도방법, 성원사, 1987.
- 2) 김성이, 결혼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보호방안, 한국청소년학회 세미나, 1992
- 3) 도중수, 현대사회와 문제, 사회문화 연구소, 1991
- 4) 송광성의, 정학.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 연구원, 1992
- 5) 이재창, 한국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의 방향, 청년연구 5집,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6) 장석민의, 이탈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8
- 7) 장인협, 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1987
- 8) 표갑수, 학교이탈자의 이탈 원인과 대책, 청구대학교, 1992
- 9) 한준상,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출판부, 1990
- 10) 함중환, 청소년, 상조사, 1986
- 11) 한국청소년 연구원, 청소년심리학, 1992. 청소년 지도자 교재총서
- 12) 한국청소년 연구원, 청소년문제론, 1992. 청소년 지도자 교재총서
- 13) 한국청소년 연구원, 청소년지도론, 1992. 청소년 지도자 교재총서
- 14)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활동론, 1994. 청소년 지도자 교재총서
- 1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관계법과 행정, 1994. 청소년 지도자 교재총서
- 16)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법령집, 1997.
- 17) 문화체육부, 청소년기본법령집, 1996.
- 18)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6.
- 19) 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 청소년의 비행심리와 인성지도, 1994.
- 20) 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1992
- 21) 강병서의, 통계분석을 위한 SPSS/PC+, 무역경영사, 1993